동업종간 유기적 관계 선행

KARS 도입 강조하는 물류 버팀목

김동기 /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KARS 체제도입은 기업의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고 불량품 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략수립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부품의 기술양식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어 아웃소싱(外注)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21세기 한국물류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설립된 '한국로지스틱스학회' 김동기 회장은 물류난 극복을 위해 KARS 시스템도입을 특히 강조했다.

경제의 암흑대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한국의 물류문화는 낙후돼 있다. 도로의 체증, 항구의 협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하고 업체간 비과학적 생산방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94년도 물류비용이 43조원(국민총생산의 17%)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김회장은 "물류비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 민간기업, 학계, 일반국민들의 물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적게 할 것인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생산시설자동화 투자에 많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해서 생산한 물건은 공장의 창고에서 기차나 화물자동차에 실려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용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한 것 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물류비절감을 위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우선 제2의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난 체증에 따른 시간의 효율화를 위해서 입니다. 둘째로 보관창고(저온·보온·냉동)의 자동화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한 하역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 가공, 수송, 보관의 일괄처리 물류단지를 조성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공차회환(空車回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류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건비, 물류비가 기업에 주는 추가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KARS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고 밝혔다.

▲ 김동기 회장

자상한 스승의 역할과 학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김회장은 지금 협심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훈훈한 미소와 업계의 많은 관심에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 우연찮게 회장직을 맡았지만 자부심으로 로지스틱스학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수상과 저서를 남기며 아직도 집필에 열중인 그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정부는 물류근대화 5개년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계획안에 산·관·학으로 KARS시스템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98년까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WTO가 97내지 98년부터는 세계 모든 교역품목을 KARS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계는 동업종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류회사, 창고회사, 수송회사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KARS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Ko

변준섭 기자